

# 九谷焼

## 歴史

江戸時代初期に、大聖寺藩主前田利治(加賀藩3代藩主前田利常の三男)の命で有田で製陶を学んだ後藤才次郎が、江沼郡九谷村(現加賀市)で窯を築いたのが始まりとされている。

五彩で描いた美しく、力強い大胆な色絵は「古九谷」と呼ばれ、世界的に高い評価を受けている。しかし、約50年ほどで姿を消し、約100年後金沢の春日山窯、続いて小松で若杉窯が始まった。その後、吉田屋窯、宮本屋窯、永楽窯、小野窯等がそれぞれ特色ある色絵を作り出した。

江戸末期から明治初期にかけて活躍した九谷庄三は繊細で華麗な彩色金欄手を広め、産業としての九谷焼に大きく貢献した。

現在では、量産化に対応するため、素地づくり、上絵付けなど分業体制が確立している。

## 特色

各時代、各窯の特徴ある作風がある。

- 古九谷 …………… 黒や赤黒の骨描きに、渋い彩色で素朴豪快
  - 木米 …………… 全面に赤塗りで人物などを描く
  - 吉田屋 …………… 赤を使わずに緑、黄、紫の塗り埋め手
  - 飯田屋 …………… 赤と金欄で中国風の風俗や文様を描く
  - 永楽 …………… 金の上に赤の模様
  - 庄三 …………… 花鳥山水等を描いた彩色金欄手
- 昭和51年6月8日石川県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



# 국가지정

## 역사와 특색

구타니도자기의 역사는 17 세기 중엽에 빈주의 명을 받아 규슈의 아리타에서 도자기를 배운 고토 사이지로가 구타니무라(현재의 가가시)에 가마를 만든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오색의 특징적인 고사이로 그려진 대담한 문양의 '고구타니'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마는 50 년 후에 그 모습을 감추었다가 100 년 후, 고구타니는 가나자와의 가스가야마가마, 고마쓰의 와카스기가마에서 부활했다. 이후 요시다야가마, 미야모토가마, 에이라쿠가마, 오노가마에서 각각 특색있는 구타니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19 세기에는 구타니 쇼조가 화려하고 독특한 색채의 구타니도자기를 제작함에 따라, 구타니도자기를 산업화시켜 발전에 공헌했다.

##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小松市(코마쓰시)・加賀市(가가시)・能美市(노미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花器、飾皿、茶器、酒器、食器(꽃병, 장식접시, 다기, 주기, 식기)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石川県九谷陶磁器商工業協同組合連合会

(이시카와현 구타니도자기 상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923-1121 能美市寺井町よ25(노미시 테라이마치 요 25)

TEL (0761)57-0125 FAX (0761)57-0320

MAIL rengoukai@kutani.or.jp http://www.kutani.or.jp/rengoukai/